

미술관 결혼식...신랑·신부 작품 감상 경매도

광주시립미술관 올해부터
청년작가에 로비 무료 제공
이인성·성혜림 작가 결혼식
조진호 관장 주례 나서
내달 5일까지 합동 전시도



지난 28일 조진호 관장 주례로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이인성·성혜림 작가가 결혼식을 올리고 있다. 미술관은 청년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로비를 결혼식 장소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 제공>

지난 28일 광주시립미술관에서 결혼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인성(34)·성혜림(28) 작가가 미술관 로비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지역 선후배 미술인이었던 두 사람은 지난 2011년 이 작가가 참여했던 중국 북경 레지던시 결과전을 계기로 사랑을 키웠다. 당시 양산동 레지던시에 참여하고 있던 성 작가는 전시회에서 이 작가를 처음 만났고 서로 호감을 느낀 둘은 급속도로 가까워지며 약 5년간의 연애 끝에 웨딩마치를 올렸다.

이날 결혼식 주례는 조진호 관장이 나서 예술 선배이자 인성 선배로서 후배들이 앞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당부하고 더 좋은 작품을 보여줄 것을 기원했다. 사회에는 평소 친분이 있던 이조흠 작가가 나섰다. 이 작가는 그동안 보여줬던 익살스런 작품 세계 만큼이나 재치있는 말솜씨로 하객들에게 즐거움을 줬다. 미술인들의 결혼식답게 예식 중간 특별 이벤트로 경매도 진행했다. 이인성, 성혜림 작가가 그린 각 1개 작품이 저렴한 가격에 출품됐다. 이조흠 작가 진행으로 금세 낙찰이 됐다. 가족, 지역 미술인 등 하객 약 300명이

두 사람의 앞날을 축하해줬다. 로비 아트라운지에서는 지난 24일부터 6월5일까지 성혜림·이인성 2인전 '나결(紉)'이 열리며 두 사람이 그동안 어떤 작품세계를 보여왔는지 소개하고 있다. 초현실적 풍경 속 주황색 공을 등장시켜 현실과 가상을 오고가는 이 작가 작품과 어른스런 여자아이를 통해 내면을 표현하고 있는 성 작가 작품을 동시에 만나볼 수 있다. 시립미술관은 올해부터 결혼식 장소를 고민하고 있는 지역 청년작가들에게 미술관 로비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행편이 넉넉지 않은 청년 작가들에게 결혼식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미술관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다.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하객 중에는 미술관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아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도 노렸다.

평소 바쁜 일정에 자주 만나지 못하는 선후배 미술인들이 한자리 모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미술관은 문턱이 높다'는 인식을 바꾸며 선후배 교류 공간이자 소통 창구 역할도 하고 있다. 피로연은 1층 야외테라스에서 진행하며 일반인 전시 관람 방해할 최소화했다. 미술관 결혼식은 결혼을 앞둔 청년작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비용 부담은 둘째 치더라도 미술관 내·외부를 활용할 수 있어 야외 결혼식 분위기도 느낄 수 있고 로비에서 전시를 열 수 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2~3달이 미술관에 문의를 하며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일(38), 김민지(34) 작가 부부가 지난 3월 처음 미술관에서 결혼식을 올린 데 이어 이·성 작가가 두번째다. 김 작가는 "지난해 예식 장소가 마땅치 않아 고민하고 있을 때 시립미술관 측에서 '로비에서 올려보는 게 어떻겠냐'며 연락을 받았다"며 "미술관에서 처음 올리는 결혼식이어서 장소 부분 등이 어떨지 몰라 반신반의 했지만 막상 하고나니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미술인 부부로서 의미가 더 남다르고 후배 부부들도 잘 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진호 관장은 "미술관은 전시만 하는 곳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은 문화를 향유하고 작가들은 고민과 진로를 이야기하는 사랑방 같은 곳이다"며 "앞으로 청년작가들을 힘 닿는 데까지 지원하겠다. 주례를 부탁하면 언제든지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이인성 작 '다른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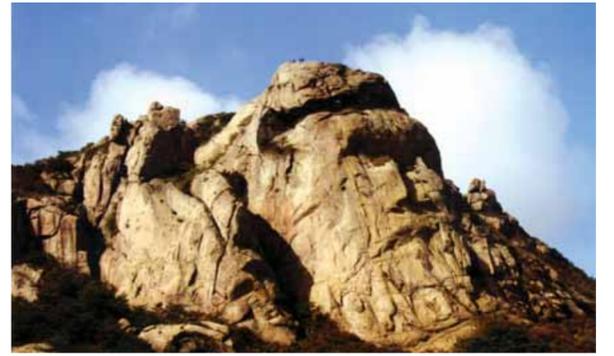
성혜림 작 '눈물이 글썽'

광주시립미술관 내달부터 전시 관람료 무료

광주시립미술관이 '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해 6월1일부터 전시 관람료를 무료로 운영한다. 관람료는 2008년 3월부터 어른 500원,

청소년·군인 300원, 어린이 200원을 받아 왔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대상에게 입장료를 받지 않지만 대관전시, 특별·외부 기획전시는 별도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술관에서는 현재 2016 아시아 민주·인권·평화전 '진실-비틀어 보기' (~ 메모리즈-동행'(~8월7일), '신소장품 2015'(~7월3일) 등이 진행되고 있다. 문의 062-613-710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구정봉 큰바위 얼굴'

千의 얼굴...월출산 큰바위 얼굴의 사계

박철씨 사진전...내달 17일까지 영암문화원

지난 2009년 1월31일, 월출산 모습을 앵글에 담아오던 지역 사진작가 박철씨는 구정봉을 바라보던 중 깜짝 놀란다. 전설 속에서나 나올법한 얼굴 형상을 만났기 때문이다. 월출산 큰바위 얼굴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이다. 박철 작가가 '동이의 귀환-월출산 구정봉 큰바위얼굴'을 주제로 영암문화원에서 6월 17일까지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구정봉 큰바위얼굴 사진들을 비롯해 박씨가 지난 30년간 찍은 월출산 사진을 만날 수 있다. 사시사철 월출산을 오르며 찍은 큰바위얼굴 사계절 변화 모습과 아침·낮·오후 풍경을 선보인다. 또 옛 중국에서 우리 선조를 지칭하던

'동이(東夷)'와 큰바위얼굴을 결부시켜 민족정신을 이야기하는 작품 '동이의 꿈'시리즈도 출품한다. 지난 2010년5월27일 촬영한 월출산 무지개얼굴도 공개한다. 두개로나뉜 무지개가 마치 사람 형상처럼 보인다. 그밖에 운무와 햇빛으로 둘러싸인 월출산 모습을 볼 수 있다. 영암 출신 박씨는 광주대 사학과·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사학회 정회원 영암관광지킴이 회장, 한국문인협회 회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월출산 가이드북', '달빛 아래 도란도란 영암이야기', '동방의 등불 큰바위얼굴 이야기' 등이 있다. 문의 061-471-069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이야기 100개 발굴

광주 역사문화 스토리텔링북 만든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백수인)이 지역 역사문화자원 100개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텔링북 제작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광주 역사문화 원류 1000개를 조사, 분류, 개발하고, 전문가 자문·선정을 통해 역사교육, 관광, 문화 콘텐츠로 활용가능한 100개의 이야기를 발굴할 예정이다. ▲광주의 문화유산, 문화예술, 인물, 건축, 민속, 전설 등 1000개의 역사문화자원 목록화 및 보고서 발간 ▲이야기 100개를 재미있고 읽

기 쉽게 만든 스토리텔링북 발간 ▲광주 역사문화지도 제작 등을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 한편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구축사업은 향후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홈페이지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이미지, 웹툰, 영상, 스토리텔링북 등 다양한 콘텐츠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또 광주지역 100곳에 서려있는 대표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가 넘쳐나는 도시' 만들기로 확장할 계획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물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아프리카 소나조각 앙코르 전시회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 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문선 1층) * 400여점 전시

6 호남예술제 새싹그리기 축제

접수기간 2016. 6. 7(화) ~ 6. 10(금)

개요 | 작품 공모

- 대상 : 전국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 시상 : 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 결과발표 : 2016년 6월 23일(목)
- 호남예술제 홈페이지(http://art.kjmedia.co.kr)에 발표
- 작품크기 : 8절(개인 용지 사용가능)
- 주제 : 제한 없음

참가

- 참가비 : 7,000원(20명 이상 단체할인 4,000원)
- 접수처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금남로 27가)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새싹 그리기축제 담당자 앞

주최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목포시 나주시

문의 062-220-0541 http://art.kjmedia.co.kr